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는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 중에 에스더서가 세 번째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에스더서의 시기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시기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과 유대 땅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 각각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에스더서는 바벨론 땅 수산 궁을 중심으로 메데와 바사 왕국에서 있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사 왕 아하수에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락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를 갚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을 시작한 이 후에 있었던 일로써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바사 왕국에 안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왕국에서 안주하려 했다는 오해는 이 에스더서 이 후에 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을 미루어 볼 때 아직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에스더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에스더는 바사 왕의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르는 매우 강력한 통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라는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귀족과 지방관과 신하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의 왕비인 와스다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와스다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왕비를 보이고 싶었지만 와스다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결국에는 왕비가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었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왕을 위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하만의 목을 달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르드개를 시기하여 모르드개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왕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왕의 명령아래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함께 지혜를 내고 용기를 내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교만을 적절히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나 하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모르드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왕이 잠을 청할 수 없어 모르드개가 왕을 위해 세운 공을 알게 되는 것 등은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며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만이 어떠한 계략을 쓰다가 자기 꾀에 빠지게 되었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때에 인간의 지혜와 권력조차도 무

력화 시키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손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위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그 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